메트로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제3220호 www.metroseoul.co.kr

전경련 짱 일감몰기도 짱

GS그룹 계열사 18곳 규제대상… 현대차 2배·삼성그룹 18배

허창수 전경련회장(GS그룹회장)

GS그룹의 계열사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규제심사 대상에 거론되며 일감몰아주기 선두 기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룹 수장인 허창수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3연임하면서 공정위 규제를 역행해 일감몰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CEO스코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GS그룹은 상장사 2곳과 비상장사 16곳 등 총 18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오너일가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0곳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중 압도적인 1위 규모다.

조사대상인 20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1곳 △현대차그룹 9곳 △SK그룹 3곳 △LG그룹 2곳 △롯데그룹 4곳 △한진그룹 5곳 △한화그룹 5곳 △두산그룹 4곳 △신세계그룹 1곳 △CJ그룹 7곳 △LS그룹 7곳 △동부그룹 6곳 △대림그룹 4곳 △부영그룹 9곳 등으로 나타났다.

18곳에 이르는 계열사가 도마 위에 오른 GS그룹이 최소 2배(현대차, 부영)에서 최대 18배(삼성, 신세계) 수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선두를 달린 셈이다.

2013년 말 대비 삼성은 2곳, 현대차 2곳, SK 2곳, 한화 1곳, 동부는 1곳 등 규제대상 계열사를 줄였다. 하지만 GS그룹은 18곳에 달하는 규제대상 계열사를 변동 없이 유지했다.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심사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오너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의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지에스아이티엠, GS네오텍 등은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로 지목된다.

지에스아이티엠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상무 등 오너일가 4세들이 주요 주주로 자리한다. 허 상무 8.35%를 비롯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대표의 장남 허서홍씨 22.74%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허선홍씨 12.74%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아들 허준홍씨 7.08% 등 허씨 일가 4세들이 지분을 쥐고 있다. GS칼텍스와 GS건설, GS리테일, GS홈쇼핑 등이 내부거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올리고 있다.

허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GS네오텍은 2013년 매출의 절반 가량을 GS건설 등 계열사에서 올렸다.

최근에는 허 회장의 삼촌 회사인 알토 역시 매출의 40% 정도를 GS건설 등 계열사를 통해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그룹 수장이자 전경련 리더인 허 회장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침에 맞춰 대기업들의 자정 흐름을 도모하진 않고 도리어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총 6~7개 기업집단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18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에 착수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간접보유 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규제대상 회사들은 별다른 비용 없이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만으로 손쉽게 규제를 벗어나거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본연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는커녕 규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 관계자는 "우리가 건수로는 많지만 액수로 보면 현대차나 SK 등 다른 대기업에 비해 아주 미미한 규모"라며 "해당 업체들도 핵심 계열사가 아닌 방계 회사들이다. IT나 물류 등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시책에 맞춰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사드 영구배치?…김칫국 마시는 미국

우리 정부, 미국 일방적 언급에 '불쾌감'
일각서는 '사드 무용론 불식 의도' 분석

미국 정부 관리와 군 인사들이 연일 자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무부 차관보의 입에서는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미측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의 입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8일(한국시간) 케리 장관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한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 직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사드 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미국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 달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애슈터 카터 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여전히 우리 정부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의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의 발언에는 불쾌감이 묻어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로즈 차관보는 사드 정책 담당자도 아닌 데 너무 (발언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 내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그때 액션(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의 의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소식에 국내에서 사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발사 장면 /록히드마틴 제공

생각에 잠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합뉴스

북한 '몽니'…반기문 방북 무산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방북 허가를 돌연 취소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자기 개성공단 방북을 철회한다고 밝혀왔다"며 "북측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양의 이런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토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사전에 승인을 해놓고도 취소를 한 것은 반 총장의 방북을 통해 이득이 되는 것과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 등 양 측면을 놓고 따져본 뒤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숙청설'을 공개해 파문을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후 북한을 겨냥해 '공포정치' 비판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발표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이 같은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정윤아기자 yoona1@

미 국세청 '뇌물 후원금' 클린턴재단에 칼 댈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연방국세청에 클린턴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요청했다. 클린턴재단은 뇌물성 후원금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대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치부로 평가되고 있다. 공화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연방국세청이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클린턴재단이 일부 후원금의 출처를 숨긴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린턴재단에 대한 (자선업무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법한 지를 조사해 30일 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국세청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를 겨냥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연방국세청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미국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15일 아이오와주 주도 디모인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클린턴 전 장관은 서민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강연할 때마다 3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는 등 반서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美, 중국인 6명 산업스파이로 기소

애플 아이폰 기술 빼내

미국 애플 아이폰 기술을 빼낸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자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범인 가운데 장하오 중국 톈진대학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장 교수는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무부는 장 교수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바코사와 스카이워크스솔루션사에서 민감한 무선통신 기술을 빼내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막 음향 공진 소자'(FBAR)라 불리는 기술이다.

FBAR 기술은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주파수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걸러내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관련 부품을 애플 아이폰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돼 미국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존 칼린 법무부 부장관은 기소된 6명에 대해 "기민감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의 비밀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며 "산업스파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새누리發 태풍… "단말기도 가격 내려야"

고가의 플래그십 위주 단말기시장 변화 눈앞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도 외국 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 역시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현 단말기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선 단말기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 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음성통화 '3만원대 무제한'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 의장은 "국민들의 통신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통신 시장과 벤처 생태계에 여러 가지 큰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선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게 되니까 집전화 같은 유선전화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당정의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제4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일각에서는 또 통신비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 의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의장은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문제는 아직 검토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중심요금제를 통한 가격인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중국과 인도는 저가폰이 대세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중국 샤오미의 Mi 4i 단말기 론칭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인파. 샤오미의 새 단말기의 가격은 205 달러(22만원)에 불과하다. 고가의 플래그십 위주의 시장인 국내와 달리 중국과 인도에서는 토종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는 현재 이들의 가격공세로 세계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여전히 안방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 다시 시동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했다.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5월2일 합의문을 지키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5~26일께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불안해서 병원 가겠나

5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소방특별조사 결과 5곳 중 1곳이 불량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점검대상 4399곳 중 불량이 발견된 의료기관이 916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25곳 중 151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46.5%의 불량률을 보였다. 이어 대전이 30.1%, 경남(창원 포함)이 28.0%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의료시설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상태에서 환자들의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소화 및 방화 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운영될 필요가 크다"며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역시 화재나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뉴욕 vs 서울, 세입자보호 달라도 너무 달라

선진국 대도시의 세입자 보호 실상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비교해서 뉴욕 등 선진국 대도시는 세입자의 천국이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공청회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장기적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여부를 물어야 한다. 계약 갱신 여부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결정한다. 뉴욕시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뉴욕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문제로 접근한다.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가 방대한 자료와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참고하는 자료에는 시민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결혼한 부부의 빈곤률,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된다.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상가에 대해서만 임대차 갱신제가 적용될 뿐이다. 임대료 인상 규제도 없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면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라고 해도 임차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욕시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물론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김 교수는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 – 공정임대료 – 분쟁조정제도 –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나라별로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국내에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국회 대책비 유용 논란…"X묻은 개가 X묻은 개 나무란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대책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국정감사 때 단골로 자료 요구하는 게 피감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이다.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데 사용해서 국회에서 질책당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감시 통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X묻은 개가 X묻은 개 나무란다, 이게 국민의 생각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수활동비도 공금… 개인사용땐 당연히 횡령죄"

법조계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 관련규정 애매해 처벌수위 논란"

홍준표(왼쪽) 경남지사,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속초수중레저연합회는 20일 속초 대포항에서 바닷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거둬들이는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국기원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로 본다

남북대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29개 분야 국가기록물이 포털 네이버에서도 제공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수록된 서술기록 1천89건과 관련 이미지 4천847건, 동영상 407건 등 총 6천343건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공된다.

네이버에 제공되는 국가기록원 콘텐츠는 ▲기록으로 보는 남북대화 ▲식량증산 ▲한국과 유엔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등 29개 분야다.

국가기록원과 네이버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기록원이 먼저 네이버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네이버가 지식백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성사됐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활용도를 높이려는 국가기록원과, 정보의 품질과 신뢰도를 개선하려는 네이버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신체감정 신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구속)씨가 과거 손 부상을 들어 살해의도를 또다시 부인하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우며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감정을 통해) 운동신경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돼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오른쪽 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팔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만으로 김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3명을 증인으로, 변호인은 김씨와 함께 25년간 영화활동을 함께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현재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 있는 저의 위생관리가 이정도면 다른 일반 동의 관리는 어떻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선준기자 rsunjun@

檢 '포스코 비리' 前임원 2명 구속

정동화 전 부회장 14시간 조사… 구속영장 만지작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가 10명으로 늘었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전날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미란기자

“나쁜 인사” vs “직원 숙원”

이마트 新인사제도 가처분 재판 열려

이마트 노동조합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회사가 도입한 신인사제도가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신인사제도가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숙원을 해결해준 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평소 공통직과 전문직1군 직원들의 업무가 겹쳐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신인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신인사제도를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는 성과 우선주의 제도”라며 “하위밴드 직원이라도 최우수 인사는 상위밴드 직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마트 측 변호인은 “앞서 (신인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직원 90%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이 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며 “전문직 2군에게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이들이 동의절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 설명회에서 직원들에게 건넨)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앞장만을 예시로 보여주는 서류이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중 하나다. 이는 정확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 변호인은 “이마트가 쟁점으로 삼는 임금피크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우리 노조는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인원승격·임금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는 직급, 직군을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서수원 주민들 “화장장 건립 반대” 20일 오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화성광역화장장 예정지에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화장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태 방산비리’ 연루 SK C&C 前전무 영장

합수단 ‘7억 뇌물’ 정옥근 前해군총장 아파트 가압류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공범인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 받았지만 연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은 배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윤씨 밑에서 EWTS 실무를 맡은 지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군·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500만원씩 7억700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1억 손배소

“‘창렬스럽다’에 이미지 훼손” 업체는 ‘사기 혐의’로 맞고소

가수 김창렬(42·사진)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질이 낮은 상품을 일컫는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값비싼 반면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형편없는 음식을 의미할 때 ‘창렬하다’고 쓰인 탓이다. 2013년 4월 소속사 차원에서 대책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이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미란기자 actor@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사진)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여)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김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작년 9월 열린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윤씨와 난방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연미란기자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 '중립' 유지

한국투자증권 "내달 15일 이후 지켜봐야"

한국투자증권은 20일 증권업종에 대해 "가격제한폭 확대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며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중립'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에의 중립적인 영향 ▲우량 대형주와 중소형주간의 변동성 격차 확대에 따른 비대칭적 영향 가능성 ▲증권사 위험관리 역량 중요성 부각 및 시장 구조 변화의 동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번째 항목으로 중소형주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증권사도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증권사의 신용관리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주요 증권사들은 현재의 신용 주식거래 구조에서 급격한 변화를 계획 중인 곳은 없다"며 "단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어서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신용 주식거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반대매매시기를 단축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중소형주 전반의 수급 악화가 일어날 것인지 여부는 6월 15일 이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격제한폭 확대와 미국 금리정책 변화에 따른 대내외 변동성 관리를 꼽았은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중장기적 견지에서는 증권사들의 수익모델 변화, 즉 레버리지와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들과의 서비스 접점이 넓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수준의 주가 수준에서는 약해지는 모멘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BIS비율 수출입·기업銀 '최저'

1분기 총자본비율 13.89% 작년 말보다 0.11% 떨어져

올 1분기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지표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3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BIS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3.89%로 전년말보다 0.11%p 하락했다.

같은기간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1.46%, 10.98%로 0.08%p, 0.15%p 상승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총자본비율이 1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2분기말(13.88%)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원화대출금이 늘고 환율 상승으로 원화환산액도 증가해 위험가중자산이 11조4000억원(0.85%)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16.77%, 16.37%, 15.1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수출입은행(10.39%), 수협(12.17%), 기업은행(12.52%)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북(7.56%)은행과 경남은행(7.89%), 기업은행(8.52%), 우리은행(8.72%) 순으로 낮았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3.61%로 작년말 보다 0.07%p 내려갔다.

총자본이 2000억원(0.17%) 감소한데다 지주사 내 증권사의 채권 보유 증가로 위험가중자산이 2조6000억원(0.31%)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1.35%, 10.78%로 0.19%p, 0.29%p 올랐다.

은행지주회사별로는 SC은행(16.00%)과 KB금융그룹(15.85%)의 총자본비율이 높았고 BNK금융(11.58%)과 하나지주(12.50%), JB금융(12.6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JB금융(7.03%)과 BNK금융(7.70%)은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과 지주사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는 2016년부터는 바젤 Ⅲ도입에 따른 단계적 추가자본 부과와 최근 수익성 부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증권 발행 등을 포함한 자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
1588-5114 삼성화재 SAMSUNG

삼성화재,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해 'NEW엄마맘에쏙드는' 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업계 최초로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보장한다. /삼성화재 제공

"개인별 맞춤형 은퇴설계 지원"

IBK기업銀, 은퇴시장 개척

IBK기업은행이 은퇴설계시스템을 구축해 은퇴시장 개척에 나선다.

20일 기업은행은 개인별 맞춤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IBK평생설계시스템'을 오픈하고 전 영업점에 은퇴상담 전문 인력인 'IBK평생설계플래너'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IBK평생설계시스템'은 고객의 재무상황과 은퇴준비 현황 등을 토대로 '평생설계지수'를 산출해 은퇴 준비도를 진단한다.

이는 국민연금 예상 가입기간과 물가상승률 등 통계정보를 활용한 간편 은퇴설계부터 재무목표를 반영한 종합 생애설계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또 진단을 통해 은퇴준비 방안과 성향별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고객은 영업점 창구에서 IBK평생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은퇴설계를 받고 '은퇴진단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은퇴설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6월 중 IBK평생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모바일뱅킹인 ONE뱅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평생설계시스템은 IBK만의 은퇴진단지수를 활용해 은퇴준비를 돕는 차별화된 은퇴설계 시스템"이라며 "IBK평생설계플래너 확대와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은퇴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이광구 행장 "해외영업망, 올해 210개로 확대"

우리은행, 中 '충칭분행' 개점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중국 충칭에서 '충칭분행 개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충칭은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충칭분행은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됐다.

분행에서는 지상사 대출업무를 비롯해 중국인과 중국기업에 대한 개인금융, 기업금융, 외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7년 한국계 최초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우리은행은 충칭분행 개설로 중국 내 총 18개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또 올해 안에 쉔양분행, 상해 렌양지행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국법인은 20일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해 현지 영업현황과 향후 영업전략에 대한 방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우량 고객 신용대출 등 리테일 영업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사업 추진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올해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미얀마 MFI 설립, 인도 구르가온 지점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185개 해외 영업망을 올해 말까지 210개, 중장기적으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해외 수익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장은 충칭분행 개점식 후 인도 구르가온을 방문해 점포 개설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2014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대 상

종합대상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대상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대상

전라북도 완주군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경상북도 영덕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우수상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속초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합천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상

경기도 동두천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전광역시 서구

앱 강화… 실시간 고객 자산 지킴이 '우뚝'

창간 13주년 相生

하이투자증권

관심종목 관리·매매 신호 등 편의 극대화 '투자비서' 도입 고객 중심 자산관리에 총력

하이투자증권(대표 서태환)이 고객서비스 편의성 확대와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 모바일 증권거래 앱인 '스마트하이' MTS의 기능을 향상시켜 '스마트하이 플러스'를 선보였다.

스마트하이 플러스는 주식주문의 편의성, 관심종목 관리, 매매신호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실시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종목 및 시장 정보를 안내하는 '투자비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비스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또 고객들의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분석콘텐츠를 강화한 중국주식(후강퉁) 매매 서비스를 오는 6월 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관리도 고객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명가로 평가 받아온 장점을 살려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대의 저금리·저성장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배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스터리 쇼핑에서 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수상(전체 3위)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며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 지점 수 1등인 점을 활용해 지역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지역특화 전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中 하얼빈역에 대형 옥외광고 선봬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앞장

하나금융그룹이 중국 하얼빈 기차역 내 안중근 기념관에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이는 광복 70주년의 뜻을 되새기고, 한·중 양국 우호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광고가 집행된 곳은 작년 초 개관한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있는 장소로 특히 올해는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6주년의 해를 맞아 더 뜻 깊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노란 바탕에 길게 펼쳐진 광고에는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천리를 바라보려고 누각을 한 층 더 오른다)'라는 중국 왕지환 시인의 싯구가 적혀 있다.

하나금융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싯구가 적힌 서예작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한바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中 주식 흐름을 한 눈에… KDB대우證, 28일 中투자 아카데미

KDB대우증권이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중국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일시적인 조정기에 중국 정부의 금리인하로 인해 재차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최근 동향과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프라 업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중국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1, 2부 형식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중국시장의 동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프라와 소비재 관련 종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강홍구 대우증권 해외상품영업부장은 "후강퉁 시행 이후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시장을 한 층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카데미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KDB대우증권 해외상품영업부(02-768-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창간 13주년 相生 KDB대우증권

"연금저축도 관리 받으세요"

연령·매월 납입금액 기준 고객별 맞춤형 상품 제언

매월·분기·연간 단위 1대 1 밀착 관리 서비스

KDB대우증권이 다양한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맞게 제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보통 연금은 초장기로 운용된다. 그래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가령 30세부터 54세까지 매월 33만원씩 25년간 납입한 고객이 연 3%의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 연금수령액은 55세부터 84세까지 30년간 매월 세전으로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 연 2%를 올리면 세전 수령액은 102만원으로 약 1.7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대 수익률을 높여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이라고만 생각할 뿐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수익률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무관심하다.

대우증권은 '연금저축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그동안 방치돼 있는 연금저축 관리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객이 희망하는 '연금수령액'을 제안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과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도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대우증권 측은 "고객의 연령과 매월 납입 가능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목표 수익률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이후 목표수익률 달성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월, 매분기, 년간 단위로 SMS, 이메일은 물론 1대 1 유선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밀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바쁜 일상 업무로 인해 본인의 연금저축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리해주는 새로운 차원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임직원 가족 행복’이 회사 발전 원동력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⑭ LG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심리상담실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LG 제공

LG그룹은 시장을 선도하는 고객가치 창출의 원천은 직원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임직원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를 주도할 아이디어를 찾고, 자율적으로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LG는 직원들이 치열하게 일하고, 업무에 몰입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창의’와 ‘자율’의 조직문화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업무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임직원 가정을 세심하게 챙기는 ‘가족친화경영’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가족까지 생각하는 LG의 ‘워크 스마트’

LG전자는 ‘치열하게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스마트한 근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여의도 LG트윈타워와 IFC빌딩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조정했다. 퇴근 시간도 자연스럽게 6시에서 5시 30분으로 당겨졌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확실한 재충전을 위해 여의도에 있는 트윈타워는 지난해부터 5시 30분에 정시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매주 수요일마다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업본부별로도 ‘가정의 날’을 지정해 그날만큼은 5시 또는 6시에 퇴근해

가족친화경영… 일-삶 균형 배려
칼퇴근 ‘가정의 날’ 주 1회로 확대
창의·자율 조직문화 만들기 총력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유연근무제를 2010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원거리 출퇴근자와 주말부부를 위해서 금요일과 월요일에 한해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로 출근시간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 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G생활건강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외부 회의를 계획할 경우 출근 또는 퇴근시간과 연계해 일정을 잡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출근길에 외부회의에 참석하거나 오후4시 이후에 외부 회의 일정을 잡고, 회의가 끝난 후에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LG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정시퇴근 가정의 날 주 1회 실시
임직원 가족 건강관리	부속병원 임직원 가족 무료 이용
심리 상담실 운영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임직원 및 가족 정신건강 관리
어린이집 운영	LG전자·LG디스플레이·LG화학 등 전국 주요 사업장 28곳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노력	LG복지재단 2008년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기증

◆ 임직원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꼼꼼하게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내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는 의사 3명이 상주하며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 산부인과, 외과, 안과, 피부과 진료도하고 있다. 업무로 생길 수 있는 근육통을 치료하기 위해 최신 시설의 물리 치료실, 운동 처방실, 체력 측정실도 마련돼 있다.

이 모든 시설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가족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 때문에 월 평균 이용 고객이 4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G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정신경강까지 챙기고 있다. LGCNS는 2006년부터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원들과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심리상담실 ‘마음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뿐만 아니라, 성격검사, 적성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의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본사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심리상담실인 ‘마음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LG이노텍도 본사에 상담실을 만들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연구소에도 심리상담실을 마련해 다양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공동기획 :
“잦은 야근도 걱정 없어요”

LG디스플레이 파주 정다운 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LG 제공

오전7시반부터 밤10시까지
친환경 사내 어린이집 운영

LG그룹은 여성 인력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계열사별 친환경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계열사별 전국 사업장 28곳의 어린이집에서 1300여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LG의 어린이집은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 사내부부, 맞벌이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LG광화문빌딩에 개원한 28번째 사내 어린이집은 LG생활건강, 서브원 등 입주 계열사 직원 대상 모집을 거쳐 만 1세에서 4세까지 40여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서브원은 여성 직원 비율이 각각 50%, 20%가 넘어 여성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3층에 개원한 ‘LG사랑어린이집’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상사 등 5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재 80여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다. LG사랑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오전 7시 반부터 밤10시까지 운영한다.

또 LG전자는 서울 가산동 휴대폰연구소와 평택사업장, 창원사업장, 서초 R&D 캠퍼스 등 7곳에서 사내보육시설을 운영해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LG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과 아동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LG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연간 15억원 이상을 지원, 매년 지방자치단체 1곳을 선정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을 건립해 기증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파주·구미·오산·여수·청주·서울 금천구·천안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을 기증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서 900여명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조한진기자

中企와 적극 소통 박용만
대기업 대변 급급 허창수

경제수장 리더십 명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상생의 리더십으로 지난 3년간 굵직한 외부 인사 영입에 성공했고 회장에 재추대됐지만 허창수 회장은 외부인사 영입이 신통치 않았고 최근 회장직 3연임도 재계 총수들의 잇단 투병과 감옥행, 구설수로 인해 마땅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굵직한 주요 행사가 대부분 대한상의 주최로 진행되자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8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후임으로 부임한 뒤 내부적으로는 직원 1200명과 SNS를 통해 소통하고 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협약, 기업문화개선 전담 부서 등을 개설해 상생의 리더십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회장은 이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상의 임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2대 회장에 재추대됐다. 이후 박 회장은 대한상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인사 영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회장단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이만득 삼천리 회장을 영입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 정부 굵직한 행사 주최 재계 대표단체 이미지 얻어
허, 중기와 동반성장 과정 비용부담 호소 상생 뒷걸음

반면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도하다고 여기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며 상생을 꺼리고 있어 대한상의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계 회장의 잇따른 감옥행과 투병, 실적 악화로 전경련 회장단 활동이 뜸해지면서 이렇다 할 외부 인사 영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했지만 장세주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됐고, 권오준 회장은 실적악화와 검찰 사정 수사 등으로 그룹 재건에 힘을 쏟고 있다. 전경련 활동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양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계의 맏형격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투병과 함께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고,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현재까지 3년째 수감생활을 하며 최장기 복역 중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회항'으로 홍역을 앓았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의 상생 의지 부족과 재계 수난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허 회장의 리더십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관련 굵직한 행사를 대한 상의가 주도하면서 무게 중심이 대한상의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초청 경제계 신년인사회,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제계 간담회 등을 주도했다. 2월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로 대한상의를 방문했다. 중소기업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대한상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3·4·5월 진행된 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서는 경제사절단 명단에 박용만 회장이 1번, 이동근 부회장이 2번을 차지했다. 허창수 회장은 3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상길기자 sweatsk@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여수에 개관한 문화예술공연장 'GS칼텍스 예울마루' 야간 전경. GS칼텍스는 지난 2월 여수시에 예울마루를 여수시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냈다. /예울마루 홈페이지

GS칼텍스 부진에 여수시도 울상

PX공장 증설 무기한 연기 공연장 운영권 市에 넘겨

GS칼텍스의 영업부진에 여수도 덩달아 울상이다. 여수는 GS칼텍스의 거점 지역으로 주요 정유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GS칼텍스가 추진하던 여수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이 무기한 연장되고 문화예술공연장 'GS칼텍스 예울마루' 운영을 시에 넘기는 등의 행보로 인해 여수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GS칼텍스는 악재를 겪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중국의 생산설비 확충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GS칼텍스의 영업손실은 4563억원으로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5156억원에 달했다. 1월에는 싱가포르 국적 대형유조선 우이산호와 충돌해 기름 900㎘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 일로 GS칼텍스 관계자 2명이 징역 1년, GS칼텍스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장 증설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GS칼텍스는 2012년 4월 일본 정유업체 쇼와쉘과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여수에 PX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단일 PX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규모(235만t)로 증설을 통한 여수지역의 고용창출 등이 기대됐다.

그러나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경기가 이런데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PX 공장 증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PX업황이 나빠 공장 가동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PX 스프레드 마진은 3월 t당 300달러에서 4월 400달러 안팎의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개선 추세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한 전남 여수 문화 요람 'GS칼텍스 예울마루' 역시 여수시 입장에선 계륵같은 존재로 전락됐다. GS칼텍스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종합 문화예술 공연장 예울마루를 만들었다. 조성비만 1000억원이 들었으며 매해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약 35억원에 달한다.

최근 경영상황이 나빠진 GS칼텍스는 예울마루의 운영에 손을 떼려는 모양새다. 수익(연간 7억원)의 5배가 넘는 운영비가 회사의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예울마루를 내년 5월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수시에 보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예울마루는 시유지에 지은 건물로 기부채납은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여수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여수시 문화예술과 예산이 연간 138억원인데 예울마루의 운영비(35억)는 전체 예산의 25%에 수준이다"며 "GS칼텍스 관계자들과 좀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GS칼텍스가 조금 더 운영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현대차,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

현대자동차그룹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을 2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차용훈 조선대 산학협력단장,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28개 팀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견학, 스타트업 스타와 토크콘서트, 우수 창업팀 최종 발표와 시상, 축하공연 등도 이어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대학 총 533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이노 비즈니스 3개 분야(IT/SW, 제조/유통, 서비스 기타), 소셜비즈니스 3개 분야(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역재생)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122개 팀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진행했다. 예선을 통과한 28개 팀은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1박2일간 남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았다.

20일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창업 전문가 20명과 1대1로 진행된 창업 멘토링을 통해 28개팀은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 센터장은 "우수 팀 28개의 아이디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아이템이라 생각한다"며 "노력한 대학생 참가자, 멘토, 심사위원들 모두가 이번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미래 창조경제의 주역이다"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박삼구 회장, 中 전 국무위원과 환담

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일 광주광역시에 방한 중인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을 만났다. 박 회장은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환담을 가졌다.

탕자쉬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외교부 부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13년 초까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일 우호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 중이다.

박 회장과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양국의 교류사업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박 회장이 한중우호협회 회장의 가격으로 주최한 환영 만찬이다. 싱하이밍 회교부 부국장, 하오샤오페이 주한중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한다.

2005년 제4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측 주요 인사들과 민간 경제협력과 양국 간 우호 증진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민간 외교 사절로 활동하고 있다. /양소리기자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 없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데이터 요금제의 모든 것

소비자 119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고객은 드물다. 때문에 이통3사 고객센터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주요 궁금증을 간단하게 Q&A식으로 풀어봤다.

– 기존 가입자도 데이터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위약금은 없나요?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선택 요금제 전환 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 전 요금제 가입 시 약정을 했다면 해당 약정 기간 이전에 해지했을 시 요금제 전환 이전까지 사용분에 대해 위약금 발생합니다."

– 음성·문자 완전히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요금제가 문자도 제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지만 음성 전화의 경우에는 SK텔레콤 외에는 요금제에 따라 유선은 유료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 구간 요금제에서 유선전화와 무선 음성 전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KT는 5만9900원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 유선과 무선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 구간에서 무선 음성만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얼마짜리 요금제가 적당한가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려면 모든 이통사 요금제에서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61 요금제(6만1000원)이상, KT의 데이터 선택 599(5만9900원)이상,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599(5만9900원)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달 기본 10기가바이트(GB)가 제공되고 매일 2GB 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년 약정할인 적용되나요?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없습니다. 기존 요금제에는 1년 혹은 2년 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해 줬지만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약정할인 서비스를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서비스 중지 시 위약금도 없습니다."

–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단말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비례 원칙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하려는 데 '20%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는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조건이 붙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 3G 이용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SK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만 3G 서비스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 비교 (월정액 단위:천원)

SK telecom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kt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LG U+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29.9	유·무선 무제한	300M	모바일 IPTV	29.9	무선 무제한	300M		29.9	무선 무제한	300M	모바일 IPTV
36		1.2G		34.9		1G		33.9		1G	
42		2.2G		39.9		2G		38.9		2G	
47		3.5G		44.9		3G		-		-	
51		6.5G		49.9	유·무선 무제한	6G	모바일 IPTV	49.9		6G	
-		-		54.9		8GB		-		-	
61		11GB		59.9		10GB		59.9		10GB	
80		20GB		69.9		15GB		69.9		15GB	
100		35GB		99.9		30GB		99.9		30GB	

앱으로 집안 모든 가전 컨트롤

SKT 스마트홈 서비스 공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20일 자체 개발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에 기반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홈 사물인터넷(IoT) 시장 확대 및 선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스마트홈 기기 관련 협력사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탑재한 다양한 홈기기들과 새로운 스마트홈 서비스 브랜드를 공개했다. 향후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선순환적 생태계 확산 및 개개인에 최적화된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 TF장은 "여러 제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환경에 맞는 풍부한 홈기기 라인업들과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브랜드를 20일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에서 스마트홈 기기 관련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보였다. /SK텔레콤 제공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은 개방형 IoT 플랫폼인 모비우스 및 SK텔레콤의 IoT 기술을 기반으로 홈서비스에 최적화해 자체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 런칭과 함께 스마트홈 플랫폼이 탑재된 도어락(아이레보), 제습기(위닉스), 보일러(경동나비엔), 가스밸브차단기(타임밸브) 등 4개 제품이 1차 출시됐다. 3분기에는 에어컨(캐리어), 보일러(린나이, 대성셀틱, 알토엔대우) 등 10여 개 이상의 제품이, 4분기에도 레인지후드(하츠), 보안 연계 서비스 등이 연이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Wi-Fi 무선공유기, 스마트홈 로고가 부착된 홈기기 등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과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되는 최신 홈기기만 구매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조 TF장은 "스마트홈 플랫폼의 특징은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생태계로, 가전·비가전을 아우르는 국내 주거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사들과 함께 개발해 왔다"며 "추가적인 서비스와 제휴사로의 확장성이 무한하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고객 마음 잡는 디자인·기능 갖춰라"

구본무 LG회장 신제품 점검

구본무 LG 회장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을 또다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일 서울 금천구 소재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LG전자 신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전반을 점검했다. LG는 '타협없는 고품격의 완성도'와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사용성'을 겸비한 초(超) 프리미엄 디자인을 구현하겠다는 디자인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구 회장과 경영진은 현장에서 LG전자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올레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70여 개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구본준 LG전자 부회장과 조준호 MC사업본부장, 조성진 H&A사업본부장, 권봉석 HE사업본부장, 노창호 디자인경영센터장 등 사업본부장·사업본부별 디자인 연구소장 등 30여 명이 나왔다.

구 회장 등 경영진은 LG전자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올레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70여개의 제품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스마트폰 케이스와 블루투스 헤드셋 등 악세서리 제품과 TV 받침대에 이르기까지 고객관점에서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등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구 회장은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임원세미나에서 구 회장은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까지 감동을 주는 세밀함과 기필코 이뤄내고야 마는 철저한 실행력으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구본무 LG 회장(왼쪽)이 20일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최근 출시된 G4의 디자인과 UI(User Interface) 특징에 대해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백화점에서 예술사진 관람하고 구입하세요" 20일 AK플라자 분당점 5층 리빙관의 행사장에서 사내모델들이 포토에디션 갤러리 '루마스'의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AK플라자 제공

대형마트 지역품 판매 의무 추진

유통발전법 개정안 발의 中소 상품구매·고용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의원은 20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고용 계획 △지역 중소기업 상품 구매·유통 계획 △인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노영민·백재현·오영식·전정희·홍영표·우윤근·이원욱·홍익표·전순옥·박수현·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지역상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계획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상품 납품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및 지역은행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전지역 백화점·대형마트의 총매출액은 2조171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이 지역상품을 사는데 쓴 돈은 매출액의 3.9%(857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점포에 지역 특산물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은 55.9%에 그쳤다.

대형마트 3사의 지역 기부금도 185억5900만원으로 매출액의 0.07% 수준에 불과했다. 또 지역은행 이용액은 3700억원으로 매출액의 1.4%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민고용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 및 유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결과공개를 의무화 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지원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소비자 80% "홈쇼핑서 백수오 구입"

반품·환불 상담 급증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홈쇼핑 업계의 환불 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홈쇼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홈쇼핑사 6곳의 소비자 피해대책이 발표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백수오 관련상담 1916건을 분석한 결과 82.3%의 소비자가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를 구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체별로 홈앤쇼핑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홈쇼핑(12.0%), 현대홈쇼핑(9.3%), CJ오쇼핑(6.2%), GS홈쇼핑(5.2%), NS홈쇼핑(1.8%) 순이었다. 나머지 18.1%는 구입 업체를 밝히지 않았다.

상담 대상이 된 백수오 제품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과 백수오퀸(41.8%)이 가장 많았고 서흥의 백수오 시크릿(2.6%)과 천호식품의 황후 백수오(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제품이 5.0%, 업체명을 미기재한 상담이 43.2%다.

상담 내용은 제품 반품 과 환불에 대한 내용이 70.2%로 가장 많았다. 상담 중 8.3%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에는 간기능 손상(15건), 소화기 장애(13건), 두통 등 통증 발생(8건), 자궁 관련 질환(8건), 피부질환(5건)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신체적인 이상증세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협의회은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롯데, 혁신센터 추천상품 판로 지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혁신센터 추천 상품 판로 지원에 나선다.

롯데그룹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혁신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혁신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상품 판로 지원 활동을 부산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활성화하고, 각 혁신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센터 실무위원·부산경제진흥원·롯데 유통계열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전국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부산센터와 롯데 유통 계열사의 판로 지원 계획을 공유한다. 부산센터의 판로 지원 절차는 △전국 혁신센터에서 우수 상품을 추천하면 △부산센터에 상주하는 유통 상품기획(MD)가 기본 상담과 해당 상품에 적합한 유통채널을 매칭해주는 1차 상담을 한다. △이후 매칭된 유통사 전문 MD와의 심층적인 입점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상품은 롯데백화점의 '드림플라자' 롯데마트의 '창조경제마트' 롯데홈쇼핑의 '롯데oneTV 창조경제특별관' 등 롯데 유통 계열사의 장의상품전용 매장을 통해 판매한 후 점차 판매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혁신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혁신센터를 더해 전국 단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 파업 한달째

오늘 여섯번째 교섭… 이견 조율 속도

위스키 임페리얼로 유명한 주류 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이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노사였지만 파업이후 열린 협상에서 장 마누엘 스프리 대표가 적극 교섭에 나서면서 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본교섭을 갖고 노조의 4개 핵심 요구안을 중심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노조의 4개 핵심 요구안은 △8% 임금 인상 △부실 경영에 대한 사과와 △경영 책임 △노동조합을 직원 대표로 인정해 줄 것 등이다. 본교섭에는 장 마누엘 대표가 포함된 사측 3명과 김귀현 노조위원장을 대표로 노조 측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 마누엘 대표는 지난달 21일 총파업 결의 전 12차까지 열린 협상에서는 사측을 대표하는 교섭위원만을 내세웠을 뿐 참여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파업 이후 이날까지 열린 다섯번의 본교섭에는 모두 참여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 마누엘 대표가 이렇게 한발 물러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 의식에 장기 파업으로 인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 측은 노조의 파업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지만 전체 직원의 66%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도매점을 제외하고는 임페리얼, 발렌타인 등의 주요 제품 제고 물량이 떨어지면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귀현 노조위원장은 "파업 이후 다섯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고 21일 다시 한번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 마누엘 대표가 부실 경영에 대한 사과를 약속하는 등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파업 이후 장 마누엘 스프리 대표가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에 곧 합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T커머스 'CJ오쇼핑 플러스' 론칭

CJ오쇼핑이 'CJ오쇼핑 플러스'를 론칭하고 T커머스(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은 27일 기존 CJ오쇼핑 TV채널의 베스트 상품들을 엮은 'TV 베스트 셀렉션'을 주제로 CJ오쇼핑 플러스 방송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은 CJ오쇼핑 플러스를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 창구이자 소비자들에게 양방향 데이터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TV홈쇼핑의 전략적인 확장 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J오쇼핑 플러스는 기존 TV채널에서 인기를 끌었던 중소기업 베스트 상품과 CJ몰·CJ오쇼핑 카탈로그에서 판매하던 중소기업 알짜 상품 등 중소기업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데이터 쇼핑 영역의 중소기업 전용 상설 기획관인 '동반성장·창조경제'에서는 중소기업 상품들을 수수료 0%에 소개하고 '1사1명품'과 '1촌1명품' 상품 방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오늘밤 9시 40분 첫방송

O'live

한食대첩

제작지원

하동녹차 왕의녹차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전세기로 들여온 미국산 체리 드셔보세요" 20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모델들이 미국산 '체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미국산 체리를 전세기로 들여와 판매한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20%나 신장할 만큼 체리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000톤 물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홈플러스 제공

BBQ, 전기車로 배달합니다

친환경 초소형 EV '르노 트위지' 도입
서울시·르노삼성자동차와 MOU 체결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전기자동차로 친환경 배달을 시작한다.

제너시스그룹(회장 윤홍근)은 20일 BBQ는 서울 종로 본점에서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그룹 회장,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EV(전기자동차) '르노 트위지'를 활용한 '비비큐 ECO-EV' 친환경사업의 삼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트위지는 초소형 전기차다. 트렁크 공간이 최대 180L까지 확장되며 도어가 위로 90도 까지 열리는 등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차량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트위지에는 차내 보호장치와 4점식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장착돼 배달 사원의 안전까지 도 보장 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비비큐는 홍보와 운행 테스트를 위해 서울시내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에서 5대의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홍근 회장은 "앞으로 비비큐는 차세대 초소형 EV(전기자동차)를 배달 서비스에 도입해 소비자와 기업, 사회의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더위와 함께 훌쩍해진 음료업계

당분·칼로리 줄이고, 맛은 업그레이드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당분과 칼로리를 낮춘 건강 다이어트 식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기존 야쿠르트 발효유에서 당 함량을 대폭 낮춘 '야쿠르트 라이트 시리즈'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라는 브랜드로 당줄이기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43년만에 처음이다.

신제품 '야쿠르트 라이트'는 액상과당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은 50% 줄이고 칼로리도 33% 낮췄다. 야쿠르트 고유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일유업의 발효유 브랜드 매일바이오도 기존 과일요거트 대비 당 함량을 30% 이상 낮춘 요거트 '매일바이오 로어슈거' 3종을 출시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 자사 과일 요거트 대비 당 함량을 30% 이상 줄였다. 우유의 영양 성분은 고스란히 담으면서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낮춘 플레인 요거트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150g의 넉넉한 용량으로 한끼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든든하다.

코카콜라는 피트니스족을 겨냥해 프리미엄 코코넛 음료 '지코(ZICO) 오리지널'을 선보였다. 99.9%의 코코넛워터를 농축과정 없이 그대로 담아 코코넛 원재료의 진한 풍미와 코코넛 본연의 수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칠성 '칸타타 킬리만자로'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국내 RTD 캔커피 최초로 단일 품종의 원두만 사용한 프리미엄 커피 '칸타타 킬리만자로' 2종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칸타타 킬리만자로는 여러 품종의 원두를 섞어 로스팅 한 블렌드 커피와 차별화해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아프리카 원두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을 사용한 싱글오리진 캔커피다.

담배 수출, 올해 국내 판매량 추월 전망

KT&G, 세계 5위 기업 성장
필립모리스, 45% 해외로

가격 인상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힌 담배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담배 수출이 계속 늘며 올해 수출 물량이 국내 판매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 업체들이 국내에서의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G(대표 민영진)의 해외 판매량은 1999년 26억 개비, 2005년 285억개비, 2013년 343억 개비, 2014년 434억 개비로 늘었다. 수출국 비중으로 중동이 48%로 가장 높고 중앙아시아 12%, 아시아·태평양 24%, 아프리카 8%, 미국 6%, 유럽 등 기타지역 2% 순이다. KT&G는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해왔다. 현재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성장했다.

해외 담배업체들도 내수시장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는 2012년 9억 개비, 2013년 31억 개비, 지난해 45억 개비를 호주·일본·홍콩 등에 수출하며 2년 만에 5배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 생산 공장의 올 초 누적 수출 물량이 100억 개비를 돌파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수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00억 개비 수출 돌파가 기대되고 있다.

BAT코리아(대표 가이멜드럼)의 경남 사천 생산 공장 수출 물량도 2012년 21억 개비, 2013년 34억 개비에서 지난해 55억 개비로 늘었다. 아시아 지역 수출 거점인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대만 등 1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내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담배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감소하면서 올해 담배 수출 물량이 국내 판매 물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T&G 등 담배업체 4곳의 판매량은 가격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 80억 개비에서 올 1월 37억 개비로 반토막이 났다. 3월과 4월에 각각 50억개비와 61억개비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알래스카 연어' 2000만개 팔렸다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의 알래스카 연어가 출시 2주년을 맞아 통조림 식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CJ 알래스카 연어는 후발 업체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지난해 52.9%(링크아즈텍 선물세트 제외 기준)의 점유율로 통조림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년간 누적 판매개수 2000만개 이상, 금액으로는 65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여행객 리무진버스 할인카드 출시

공항 리무진버스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특화된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주)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주)·'아이러브서울'을 운영하는 (주)오인컴퍼니는 하나카드와 이벤트 제휴를 맺고 'I♥SEOUL-Sync카드'(아이러브서울싱크카드)를 21일 선보인다.

20일 오인컴퍼니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아이러브서울싱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서울시내-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주)공항리무진의 18개 노선과 서울공항리무진 6개 노선의 리무진 이용요금 20% 현장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내 관광을 위한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도 10% 할인된다.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등 시내 주요 호텔의 객실요금 및 식음료 요금도 10~40%까지 할인해 준다. 영종대교 휴게소(포춘힐) 10% 할인, 오페라디바스 등 일부 레스토랑에서도 현장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민규기자 unha@

서울대, 세계 첫 영유아 웰니스 시스템 구축

이기원 교수 총괄 EBS·밥스누와 'I WELL'공동개발

신체건강·정서상태 진단
앱·IP TV로 실시간 전달
맞춤 콘텐츠로 해결책 제시

보육복지協 기관 대상
내달부터 시범 서비스
내년 전국 상용화 전망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돼 이르면 내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9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영유아 스마트 시스템 구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한 보육기관 맞춤형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 'I WELL'을 공개했다.

'I WELL'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언제 어디서든 정확히 진단하고 기록을 부모에게 전달한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 콘텐츠를 통해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기술 플랫폼이다. 앱(App)과 IP TV, PC 등이 연동돼 활용된다.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영유아 스마트 시스템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기원 교수가 방송통신 융합시술을 활용한 보육기관 맞춤형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인 'I WELL'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제공

서울대학교의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력, EBS미디어의 교육 콘텐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밥스누(BOBSNU)의 핵심 역량을 모아 만들어졌다.

'I WELL'은 기존의 단순한 원아수첩, 알림장의 개념을 넘어 아이의 건강정보와 예방접종 현황, 식단과 식생활 습관 등의 정보도 분석한다. EBS 미디어가 개발한 맞춤형 개발 콘텐츠로 상황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부족한 영양소나 몸의 질병,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파악해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가 손을 안 씻어 식중독에 걸리면 뽀로로가 손을 씻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식이다.

현재 EBS는 '아이들이 즐겁지 않다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동기를 유발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는 아이의 건강·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복'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기준을 연구 중이다.

'I WELL'서비스는 또한 아이에게 맞는 식단, 간식, 생활용품 등 추천 기능까지 탑재했다.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 보모·아이·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BS미디어의 캐릭터와 방송 교육 콘텐츠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PC로도 함께 할 수 있어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손쉽게 받아보며 24시간 아이와 같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 이기원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영유아기에 형성된 건강상태나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 질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며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시스템이 보육기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I WELL'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융합사업 공모에 올 1월 선정됐다. 올 6월까지 15억원이 1차적으로 투자된다.(미래 7억5000만원+EBS·밥스누 7억5000만원).

다음 달부터 경기도 과천어린이집, 국정원 어린이집 등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소속기관 어린이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며 11월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확장상품/서비스
웰니스 제품/서비스 사업자
방송통신/컨텐츠&캐릭터
ICT 통합기술
EBS미디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ICT 통합센터
보육교사
BOBSNU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I WELL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보육기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수원시 등
유아 웰니스 측정실
서울대학교
부모
IT융합기술/유아건강전문가
BT
지역 웰니스 체험 현장
Off-line 연계형 체험
6차산업

'I WELL' 전략. 아이들을 분석 후 알맞은 교육을 제시하고 보육교사, 학부모와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어린이집	개선 방안
셈, 탐구 등 학습 위주	식생활습관, 운동 등 웰니스 특화 교육
책, CD 등 배달 서비스	접속하여 원하는 콘텐츠 선택
디바이스별 콘텐츠 제한	디바이스 제한없는 콘텐츠 사용
제품/서비스 선택 어려움	서울대 선정한 웰니스 제품/서비스
부모, 사업자들 개별 연락	통합 플랫폼 통한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 도입 후 개선 방안.

강강술래, 황금연휴 가공상품 빅세일

나들이 먹거리 최대 6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5월 마지막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이나 캠핑,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는 36% 할인된 6만원,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반값인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 2매)과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 '싱글룸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하루에 한동작 허벅지' 등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스위스 시계 '그로바나' 국내 론칭

해외 시계 브랜드 수입·유통사인 코이 컴퍼니가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를 공식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로바나는 1924년 탄생돼 올해로 91주년을 맞았다. 유럽·미국·일본 등 7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2년간의 국제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아이엘투어, 中·日 등 골프여행 특가 판매

아이엘투어는 2015년 여름시즌 해외골프투어 특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청도의 캐슬렉스(사진) 상품은 주중 6일 55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여행이다. 일본에서 시원한 라운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북해도 골프가 인기로 루스츠cc 4일 99만원과 나리타 레인보우힐 5일 99만원 상품을 추천한다. /최치선기자 chisunti@

분양 호황… 건설업계 '홍보관 마케팅' 바람

정식분양 1개월 전후 오픈 실수요자 상품 관심 높여

분양시장 호황으로 연일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모델하우스 오픈 전 사전홍보관을 두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와의 접점 시간 확대를 통해 정식 분양 전 유효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홍보관이 분양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 2~3개월 전부터 전단지를 돌리거나 거점지역에 홍보부스를 두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후 청약을 받기 4~5일 전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대규모 방문객을 받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깐깐해지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정보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전홍보관이 생겨났다.

사전홍보관은 모델하우스 오픈 1개월을 전후해 지어진다. 보통 현장 인근에 지어져 그 지역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홍보관으로 재미를 가장 많이 본 곳은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경기도 광주 분양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대부분 사업장에 홍보관을 뒀다. 최근에는 용인에서 공급한 '수지 e편한세상 시티' 홍보관을 운영해 약 3주간 5000여 명을 상담했다.

대림산업 측은 "모델하우스는 그냥 구경오는 사람도 많지만 홍보관은 실수요자가 상담을 원해 찾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당첨자 발표 전이라 홍보관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실제 청약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재방문율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롯데캐슬 파크타운'을 분양하면서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이하게 현장 근처와 일산신도시 2곳에 마련, 지역 수요자와 인근 타깃지역 수요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홍보관을 통한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달 말 '일산 킨텍스 꿈에그린' 분양을 앞두고 인근 주엽역에서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00여 명씩 다녀가며 상품에 대한 우호적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반건설은 부천 옥길지구에서 '옥길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 오픈에 앞서 부천시청 인근 중동신도시에 홍보관을 지었다. 부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반베르디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이다. 또 옥길지구에서 먼저 분양을 한 업체가 중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은 만큼,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온 관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신중해지면서 보다 많은 정보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홍보관이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한화건설이 '킨텍스 꿈에그린'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대림·대우 에쓰오일 울산 공단 플랜트 수주

대림산업-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에쓰오일 울산 온산 공단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 잔사유 고도화 생산단지와 올레핀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컨소시엄은 다음달 낙찰통지서에 지시된 초기업무(실시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발주처의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승인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약 3조5000억원이다. 대림산업이 55%(1조9300억원), 대우건설이 45%(1조5800억원)의 지분을 가졌다. /박선옥기자

대림그룹 임직원 '집고치기' 봉사활동

대림그룹의 건설3사인 대림산업, 고려개발, 삼호의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4곳을 방문해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재능을 살려 소외 계층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대 내부 단열과창호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내부 조명은 전력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꿨다. 또 곰팡이 제거와 도배, 장판을 교체하고 노후한 싱크대와 가구도 바꿨다.

/김형석기자

대림산업, 고려개발, 삼호 등 대림그룹 3개 건설사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찾아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자들이 활동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림그룹 제공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추모조형물 제막식 개최 현대산업개발은 20일 경기도 양수리에서 고(故) 정세영 명예회장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정몽규(왼쪽에서 세번째)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현대건설, 해외수주액 5억 달러… 지난해의 5분의 1

현대ENG는 두 배 늘어

해외수주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현대건설의 올해 해외수주액은 5억80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억131만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수주액 기준 순위도 11위에 그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최근 몇 년간 해외수주 분야에서 선두권을 고수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105억2562만 달러의 해외수주액을 기록해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09억205만 달러로 삼성물산에 이어 2위를, 지난해에는 110억6544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5위권에 머무르던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수주 실적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49억1729만 달러의 해외수주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3억115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2년까지 해외수주액이 10위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52억6977만 달러로 4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96억4964만 달러로 현대건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주성장세로 지난 2010년까지 80억 달러에 불과하던 누적 해외 수주액은 올해 4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 1조2372억원에서 지난해 6조3854억원으로 5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1592억원에서 4084억으로 세 배 증가했다.

국내 건설업체 연간 성적표로 불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지난 2010년 51위에서 지난해 10위로 41계단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모회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수주 증가를 경쟁구도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양사의 동반 성장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폭군 연산군, 연민 느끼길 바랐죠

영화 '간신' **김강우**

강직하고 올곧은 청년의 이미지로 김강우(36)를 기억하고 있다면 '간신'(감독 민규동)에서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인 연산군을 연기한다는 사실이 의외처럼 여겨질 것이다. 김강우도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의아함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연산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준비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였지만 민규동 감독, 그리고 제작사 수필름과의 친분 덕분에 보다 빨리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민도 많았다. 기존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진 연산군과의 차별화 때문이었다. 다행히 연산군이 등장하는 작품을 거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닌 용기를 갖게 했다. 시나리오 속에 연산군 캐릭터의 차별화에 대한 실마리가 잘 담겨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다.

"폭군으로서의 연산군의 모습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간신'에서처럼 예술가로서의 연산군을 보여준 적은 없을 거예요. 역사에도 연산군이 처용무를 추면 여자들이 다 울 정도였다고 기록돼 있다고 해요. 그만큼 감성과 에너지가 풍부했던 거죠.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는 아니어도 기인은 될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영화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욕망으로 뒤얽힌 인물들을 통해 헛된 욕망의 비극을 그려낸다. 그 중심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이 있다. 예민한 성격으로 평소 음악을 잘 듣지 않는 김강우지만 이번 만큼은 촬영 전 늘 음악을 들으며 "감정의 워밍업"을 했다. 촬영 직전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놓지 않으면 연산군의 '광기'에 빠져들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핀이 나가" 자신도 모르는 연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그러나 김강우가 방점을 둔 것은 욕망과 광기가 아니었다. 폭압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연약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캐릭터든지 연민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정자에서 임숭재(주지훈)와 같이 춤을 추던 연산군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야말로 연산군 캐릭터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연산군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잽도 보여줘야 하는데 스트레이트만 보여준 느낌이랄까요?"

영화에서 펼쳐지는 연산군의 만행을 보다 보면 배우가 아닌 인간으로서 도덕적·윤리적 괴리감을 느끼지는 않았을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나 김강우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산군의 광기 또한 연기로서 즐기고자 했다. 물론 그 광기를 느껴보기 위해 촬영 전 1주일 정도를 외딴 방에서 보냈다는 일화는 그가 연기를 즐기기 이전에 얼마나 노력하고 집중하는 배우인지를 잘 보여준다.

올곧은 이미지 벗고 파격 변신
광기 어린 캐릭터 즐기려고 해
나이 들면서 연기의 맛 알아가

'간신'을 마친 뒤 김강우는 연산군을 너무 빨리 연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역할 비중에 상관없이 다작을 해온 것도 그만큼 연기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다.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잖아요. 인생에 무언가가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죠. 그럴수록 표현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만큼 연기도 재미있고요. 앞으로도 연기를 오래 하고 싶어요. 연기한지 이제 횟수로 13~14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35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요?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미니 2집으로 벌써 컴백

5인조 걸그룹 **씨엘씨(CLC)**가 오는 28일 두 번째 미니앨범 '퀘스천(Question)'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데뷔곡 '페페'에 이어 후속곡 '에이틴'으로 활동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의 컴백이다. '퀘스천'은 호기심 가득한 다섯 소녀들의 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담았다.

'치즈인더트랩' 출연 확정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을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그가 분한 유정은 외모와 집안, 학점, 패션까지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다. 그러나 상냥한 얼굴 뒤에 섬뜩한 이면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재즈보컬리스트로 공연 참여

개그맨이자 재즈보컬리스트 **이동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공연 무대에 선다. 여성 17인조 'K-레이디스 재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 예정이다.

이국주와 '마음을 주늬' 한무대

배우 **이하늬**가 오는 22일 오후 7시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마음을 주늬' 콘서트 무대에 선다. 공연은 MBC 글로벌나눔 프로젝트 '러브 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는 진행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야금 연주, 이국주와의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합동 무대를 선사한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부진한 韓영화, 여름엔 자존심 찾을까

5~6월 신작 만반의 준비
외화 대작 속편도 몰려와

올해 한국영화의 성적표가 심상치 않다. 흥행은 물론 작품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들의 거침없는 공세 속에서 "볼만한 한국영화가 없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국영화의 부진은 관객수와 점유율에서 먼저 확인된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5년 4월까지의 국내 개봉작 중에서 한국영화의 전국 관객 점유율은 24.9%에 그쳤다. 반면 직배 영화와 수입 영화를 포함한 미국 영화는 절반이 넘는 55.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

작품별로 따져보면 한국영화의 침체 양상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5년 5월 현재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다. 그러나 관객수는 전작에 못 미치는 387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 뒤를 '스물'(303만)과 '강남 1970'(219만)이 잇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작품도 많다. 설 연휴 극장가를 공략한 '쎄시봉'은 171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신하균·장혁·강하늘 주연의 '순수의 시대'는 46만여 명을 모았을 뿐이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제외하고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준 작품들이 여럿 있다. 612만 관객을 모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비롯해 '분노의 질주: 더 세븐'(317만), '빅 히어로'(280만) 등이 극장가에서 흥행을 이끌었다.

작품성에도 아쉬움이 크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들 중 언론과 평단에서 고루 호평을 받은 작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스물'과 '차이나타운' 정도가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에 할리우드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 '이미테이션 게임'(174만), '위플래쉬'(157만)가 그렇다. 최근 개봉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개봉 이후 입소문을 타며 '악의 연대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올 여름 극장가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의 접전이 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영화는 5월과 6월 신작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여름 극장가를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할리우드 영화도 만만치 않다. '쥬라기 월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등 인기 프랜차이즈의 속편들이 개봉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이영애 복귀작 '사임당' SBS로

내년 상반기 방송목표… 7월부터 촬영

배우 이영애의 복귀 작 '사임당, 더 헐스토리(the Herstory)'(가제)가 SBS 편성을 확정했다.

20일 제작사 측은 "SBS와 '사임당' 편성을 확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사전 제작을 준비 중이다. 7월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캐스팅과 대본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는 조선시대 사임당 신 씨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천재화가 사임당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영애는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와 신사임당 1인 2역을 맡아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의 일기와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사임당' 연출은 '태왕사신기' '비천무' '탐나는 도다'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윤상호 PD, 대본은 '앞집여자' '두 번째 프로포즈'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박은령 작가가 집필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엔플라잉 화려한 데뷔 엔플라잉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미니앨범 '기가막혀'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엔플라잉은 FNC 엔터테인먼트가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보이밴드다. /손진영기자 son@

연예계 연이은 겹경사

이요원 득남·남상미 임신 소식 전해

배우 이요원과 남상미가 각각 득남과 임신으로 연예계에 기쁜 소식을 알렸다.

이요원은 지난 17일 아들을 출산했다. 두 딸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 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이요원은 지난 2003년 골프선수 박진우와 결혼했다. 이듬해 첫 딸을 낳았으며 지난 2014년 5월 둘째 딸을 낳았다.

남상미는 20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남상미가 현재 임신 14주차로 오는 11월 말 출산예정"이라며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요원 남상미

남상미는 지난 1월 24일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했다. 결혼식을 마친 뒤 한달여 뒤 떠난 신혼여행에서 허니문베이비를 얻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영화 '슬로우 비디오' 개봉 이후 연기 활동을 쉬고 있는 남상미는 현재 경기도 양평의 신혼집과 서울의 산부인과를 오가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장병호기자

박현빈 장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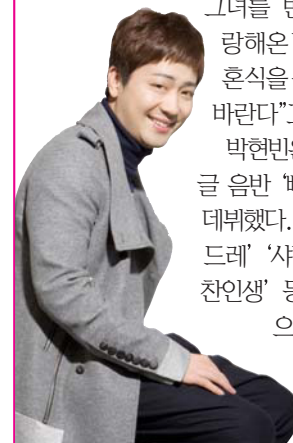
5년 교제한 여친과 8월 결혼

트로트 가수 박현빈(사진)이 8월 웨딩마치를 올린다.

소속사 H.I 엔터테인먼트는 20일 "박현빈이 8월 8일 오후 12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4세 연하 김모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박현빈의 예비 신부인 김씨는 한국 무용을 전공한 재원으로 박현빈과 5년 동안 교제해왔다. 결혼식 주례는 전진국 KBS 아트비전 사장이 맡는다. 축가와 사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비밀스럽게 연애를 해온 이유는 온전히 예비신부에 대한 박현빈의 배려 때문"이라며 "5년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박현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예비 신부와 그런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해온 박현빈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빈은 2006년 싱글 음반 '빠라빠라'로 데뷔했다. '곤드레 만드레' '샤방샤방' '대찬인생'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장병호기자

◆ 5/13 2PM FIRST TICKET OPEN ◆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1544-1555) AUCTION 티켓(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1644-5210)

‘한식대첩3’ 막내 최현석 “눈치 보기 바빠”

MC 김성주 발언 폭소 오늘 9시 40분 첫방송

올리브TV ‘한식대첩3’ 김성주·백종원·심영순·최현석(왼쪽부터). /CJ E&M 제공

최현석 셰프가 올리브TV ‘한식대첩3’ 눈치 보는 남자가 됐다.

20일 상암동 DMS빌딩에서 열린 ‘한식대첩3’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MC 김성주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선 최현석 셰프가 후배 셰프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식대첩3’에선 막내다. 한마디도 못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심영순, 백종원 심사위원의 색깔이 정말 다르다. 최현석 셰프는 그 사이에서 어떤 줄을 잡아야 할지 눈치를 본다. 제작진이 가감 없이 방송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다. 그만큼 심사위원 3명의 평가를 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셰프는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다. 또 요리를 오랜 시간 한 분들”이라며 “심사위원이지만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의를 갖춘다. 그러나 내가 느낀 부분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식대첩’ 시리즈는 쿡방 열풍을 이끈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음식 대결이라는 점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돈 PD는 “‘한식대첩’의 차별점은 한식만 다룬다는 거다. 한 장소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음식, 특히 북한 요리까지 비교할 수 있는 쿡방은 우리가 유일하다. 특히 시즌 3만의 특징은 이야기를 강화했다는 점”이라며 “탈락하는 지역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여겨져 안타깝다. 서바이벌이다보니 어쩔 수 없다. 맛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식대첩3’은 서울·경기부터 북한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 고수들이 출전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21일 오후 9시40분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10년 차 예능 내공 대폭발 ‘빅뱅’ 특집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5분

그룹 빅뱅을 100분 동안 볼 수 있다. KBS2 ‘상상플러스’ 이후 7년 만에 멤버 전원이 KBS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지드래곤·태양·탑·대성·승리는 데뷔 10년 차 아이돌의 예능감을 온전히 보여준다.

MC 유재석이 녹화 현장에서 수위를 넘나 드는 빅뱅의 입담에 “기사 다 뽑혔네요”라고 흐뭇해 할 정도였다. 특히 지드래곤과 탑은 박명수와의 불장난 댄스로 반전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 오후 9시40분

안문숙·김범수 부부가 5일장 나들이에 나선다. 시장에 있던 시민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응원하자 안문숙과 김범수는 “우리 벌써 결혼했어요”라고 외치며 화끈하게 결혼 신고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날 또 다른 부부 장서희·윤건은 깍두기 담그기에 도전한다.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이연복 셰프가 특별 출연한다. 그는 “장인 6년차”라고 고백해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동안 외모와 달리 일찍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딸이 결혼을 한 것이다. 특히 사위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을 언급하는 예능감도 보여준다. 이연복 셰프의 사위 사랑을 확인해보자.

◆ MBC ‘경찰청사람들 2015’ 오후 11시15분

그룹 소녀시대 태연을 닮은 경찰청 박예리 경위가 출연한다. 박 경위와 색다른 조합을 이룬 출연진은 동네 조폭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동네 조폭의 개념과 피해 대처법을 볼 수 있다.

/정리=전효진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34회)	15 불굴의 차여사 (95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12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9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3회) 55 불후의 재발견 (3회)	55 딱 너 같은 딸 (4회)	0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2회)	00 맨도롱 또똣 (4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6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마스크 오브 조로>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일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15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1회)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25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5회) (재)	10 코미디 빅리그 (121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59·63·64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4회)		
20시	50 JTBC 뉴스룸	00 삼시세끼 정선편 (1회) (재)	30 올리브쇼 2015 (17회)	00 쇼킹 70억 (5회)	20 주말 N 영화 (514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3회)	40 한식대첩 3 (1회)	30 한식대첩 3 (1회)	00 킹 코브라	2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프로야구 18:30
22시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7회)		한화 vs SK (KBS N SPORTS) KIA vs 롯데 (SKY SPORTS)
23시	00 썰전 (116회)	00 문제적 남자 (13회)	00 오늘 뭐 먹지? (64·28회)	00 배틀그라운드 브라더스 1부		kt vs NC (SPOTV+·SPOTV) LG vs 넥센 (SBS SPORTS)
24시	20 5일간의 썸머 (1회)	20 수요미식회 (17회) (재)	00 한식대첩 3 (1회)	00 눈 앞에 다가온 대재앙:대지진	00 내 아내의 모든 것	삼성 vs 두산 (MBC SPORTS+)

류현진, 어깨수술로 시즌아웃 '위기'

다저스 구단 53억+α… 방송사·광고계도 막대한 손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의 어깨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 전체에 먹구름이 깔리게 됐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21일(한국시간) 류현진의 어깨 상태와 수술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류현진이 어깨 수술을 받으면 올 시즌 등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에 따른 손해는 막대하다.

▲류현진 (-10억9500만원+α)

류현진은 다저스와 계약 당시 많은 옵션 조항을 넣었다. 매년 170이닝을 소화할 경우엔 25만 달러(약 2억 7300만원), 180이닝 25만 달러, 190이닝 25만 달러, 200이닝 돌파시 최대 100만 달러(약 10억9500만원)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즌을 접으면 이러한 부가 수입 자체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옵트아웃' 옵션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 다저스와 6년 계약을 한 류현진은 5년 동안 75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 곧바로 FA(자유계약선수)를 선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을 옵션에 추가했다. 또 어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재활이 무사히 진행돼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다해도 FA시장에 나왔을 때 수술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LA다저스 (연봉 -52억5900만원+α)

다저스는 류현진의 시즌 아웃으로 마케팅 활동에 급제동이 걸렸다.

다저스는 류현진을 영입한 뒤 LA 한인사회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다. 류현진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판을 제작하거나 한국 기업들과 스폰서십을 맺어 경기 초청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6월 17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추신수가 소속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한국 관광의 밤'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류현진이 시즌을 접게되면 이런 마케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도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의 올해 연봉 480만 달러(약 52억5900만원)와 치료비는 직접적인 손해다.

▲방송사 (-78억원+α)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MBC스포츠플러스는 2012년 1월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약 400만 달러(약 44억 원)에 구입한 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수혜를 입었다. 류현진의 등판 때마다 평균 2~3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류현진이 26경기에 나서 약 78억원의 부가 수입을 챙겼다.

하지만 류현진의 시즌 아웃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MBC스포츠플러스는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권을 2017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광고계 (-50억+α)

류현진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계도 타격을 받는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후 식품 업체, 은행, 영어학원 등 다수의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 류현진이 지난해 받은 광고료는 약 50억원으로 연봉인 433만 달러(약 45억원)을 상회한다.

오뚜기 '진라면'의 경우 류현진 효과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2011년 10.6%에서 류현진을 모델로 기용한 2013년 16.6%, 지난해 18.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류현진의 시즌 아웃으로 광고 효과가 급감할 전망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윤덕여호' 출국…"여자월드컵 16강 기대하세요"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마지막 훈련 장소인 미국으로 출국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윤덕여호'는 30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미국과 평가전을 치른 뒤 내달 4일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이 열리는 캐나다에 입성한다. 이후 10일 브라질(7위), 14일 코스타리카(37위), 18일 스페인(14위)과 조별리그 경기를 벌인다. /연합뉴스

강정호, 3안타 타율 0.320

추신수는 5타수 1안타

메이저리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올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강정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자 5번 타자로는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2경기 만에 다시 3안타를 날리며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으로 끌어올렸다.

2회말 1사 후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리키 놀라스코의 초구 낮은 직구(시속 146㎞)를 제대로 밀어쳐 우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깨끗한 안타를 날렸다. 이어 페드로 알바레스의 중전 안타 때 3루까지 진루한 뒤 대타 호세 타바타의 내야 안타로 홈을 밟았다.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우익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난 강정호는 5회말 1사 2, 3루 상황에 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을 치고 득점을 올렸다.

4-8로 뒤진 7회말에는 무사 1루에서 깔끔한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하지만 페드로 알바레스의 2루 땅볼 때 아웃됐다.

9회말 2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는 3루수 옆을 꿰뚫는 좌전 안타를 터트렸다. 이어 도루를 추가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활약에도 5-8로 패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보스턴 좌완 선발 웨이드 마일리를 상대로 4타수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는 마지막 타석에서 보스턴 마무리 우에하라 고지를 공략해 내야 안타를 쳐냈다. 시즌 타율은 0.242에서 0.240(129타수 31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텍사스가 3-4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사비, 바르셀로나 떠난다

카타르 알사드와 계약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의 '살아있는 전설' 사비 에르난데스(35·사진)가 내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팀과 결별한다.

사비의 아버지인 호아킨 에르난데스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비의 궁극적인 꿈은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사비의 나이가 어느새 35살이 됐다. 이제 구단과 작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비가 알 사드(카타르) 클럽으로부터 인상적인 제안을 받았다"며 "사비는 알 사드에서 축구를 계속하면서 지도자 수업도 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일간지 AS는 지난 3월 "사비가 알 사드와 계약기간 3년에 1년의 추가 옵션을 맺었다. 연봉만 1000만 유로(약 122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민준기자

覆水难收 [fùshuǐnánshōu]

<저지른 일은 만회하기 어렵다>

시사 중국어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유승준(39)이 19일 밤 홍콩에서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90도로 고개를 숙인 그는 중간중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한국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생각이 있다며 "한국의 병역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가겠다고 말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죄했습니다. 13년이 지나 이 시점에 대중 앞에 나선 것은 그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떳떳하게 그 땅을 밟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 혈통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더 이상 내 아이를 봐서도 그렇고 가족을 봐서도 그렇고 안되겠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유승준이 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 TV 방송 캡처

1시간 넘는 그의 '13년 만의 최초 고백'에 네티즌들은 들끓었습니다. '나이 다 먹어서 이제 군대 안 갈 나이니까 잘못 인정하고 한국 간다 하니 어이없다'거나 '지난 13년간 뭐 하고 있었나. 왜 이제야 용서를 비나' 등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저지른 일은 만회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의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5만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한 한 포탈 투표에서는 유승준의 사죄방송을 보고도 '용서 안 된다'는 반응이 75%에 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싶다고 호소한 유승준. 이번 생중계를 통해 그 나름의 진심을 전했지만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정경기자 jkljkl@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4				1	
				8				3
	1	7	9			6		5
		3			6			
2				1				6
			8			9		
4		2			8	3	6	
1				7				
	5				3	7		

	2				6	9		8
	8			2				4
		1				7	2	
7					1			
			2	4	8			
			6					9
	7	8				4		
9				1			7	
6		3	4				5	

스도쿠 정답

3	2	9	4	6	5	8	1	7
5	6	4	7	8	1	2	9	3
8	1	7	9	3	2	6	4	5
7	9	3	2	4	6	1	5	8
2	8	5	3	1	9	4	7	6
6	4	1	8	5	7	9	3	2
4	7	2	5	9	8	3	6	1
1	3	8	6	7	4	5	2	9
9	5	6	1	2	3	7	8	4

4	2	7	1	5	6	9	3	8
3	8	6	7	2	9	5	1	4
5	9	1	3	8	4	7	2	6
7	6	4	9	3	1	2	8	5
1	5	9	2	4	8	3	6	7
8	3	2	6	7	5	1	4	9
2	7	8	5	6	3	4	9	1
9	4	5	8	1	2	6	7	3
6	1	3	4	9	7	8	5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계류유산 두 번… 언제쯤 엄마가 될까요
2016년 자식운…긍정적 생각·건강 유의

믿음 소망 희망 여자 81년생

Q 작년, 올해 두 번이나 초기에 계류유산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기는 언제 올까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으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 졌습니다. 난임 병원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식이 있을까요? 언제쯤 건강한 아기와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A 필자가 궁금하여 관련 책을 열람해보니 계류유산은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 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로서 유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계류유산의 원인은 다른 유산과 비슷하며 태아 염색체이상, 산모가 결핵, 매독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와 태반이상, 자궁 이상, 내분비장애 등이 있을 때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독자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적혀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알려진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태아나 수정란 자체의 결함이나 염색체 이상들 이라고 하며 그 외 산모의 호르몬 분비 장애나 난소의 기능부전 등이 요인이 될 수 있고 자궁의 구조적인 기형이나 모체의 내과적 질환, 특히 당뇨나 면역학적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정도가 확인 가능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계류유산의 원인은 임산부 본인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염색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역학적으로는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자식)을 나타내는데 귀하 사주구조에 자식이 근본적으로는 있으나 수(水)기가 부족하여 강하지 못하는군요. 사주에 자식이 귀하면 운에서 자식 운이 들어 올 수 있으면 되지만 그것이 흉신(凶神)을 만날 때 출산이 안 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자식 운이 있으므로 항상 생각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꿈이 이뤄집니다. 성정이 부드러워도 생일지(生日支)에 백호는 알 수 없이 과격성을 드러내어 스트레스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궁이 일점 수기(水氣)가 부족하면서 역마와 비슷한 미역성(未驛星)으로 분주하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바쁘게 살아가야 할 사주이니 그 와중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1일 (음 4월 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0년생** 모든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72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84년생**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소 **49년생**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될것입니다. **61년생** 알차고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73년생**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 시킬수 있습니다. **85년생**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63년생** 이것을 꼭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75년생**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87년생** 물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용 **52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6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뱀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말 **54년생**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세요. **78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양 **55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67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79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91년생**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됩니다. **68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80년생**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것입니다.

닭 **57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9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1년생**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개 **58년생** 부와 명예가 함께 하겠습니다. **70년생** 교육 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8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94년생**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95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것입니다.

데이터요금제 통신비 1조 준다는 미래부 논리 '침소봉대'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라 가계 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내놓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추상적인 주장이다. 논리도 황당하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를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계 통신비가 1조 600억원 절감될 것이란 추정이다. 미래부는 우선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이 월 5만1000원 수준인데 이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2만9900원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1인당 월 2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300MB는 무시한 계산법이다. 음성 무제한으로 쓰는 고객이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계산법이다. 1GB당 데이터 요금은 3사가 기준 약 3000~6000원 사이다. 최근 50대도 고스톱은 물론 애니팡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통화가 줄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는 패턴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을 늘려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가 출시돼 그동안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내던 230만여명이 연간 약 36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년 약정시 월평균 할인액인 1만3000원에 233만명을 곱해 예상 절감액을 산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 사용 패턴 등 자료를 취합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통신비 인하 요구를 받는 회사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요금제에는 함정이 있다.

집 전화 등 유선전화 통화는 SK텔레콤만 무제한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휴대전화 간 통화만 무제한인 점, 문자 무제한이라도 하루 쓸 수 있는 문자량이 150건에서 많게는 500건으로 한정된 점, 음성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데이터 요금제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이상적인 계산을 한 것이다. 때문에 미래부의 논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본다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2.5GB 수준으로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내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2년 1월 1.5기가바이트(GB, 1515MB)에서 올해 3월에 3.4GB(3365MB)로 급증했다. 이런 데이터 중심 서비스 이용 변화와 함께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데이터 제한을 두고 마치 통신료 대폭 인하 같이 보이는 통신사의 행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데이터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2G와 3G의 이용자들을 LTE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음성통화가 아닌 데이터 사용 요금제으로 중심축을 옮겨 통신 요금을 '톡톡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장

'빠'가 필요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마니아)

기자 수첩
조 한 진
<산업부 기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잘 나가는 정보기술(IT) 기업은 애플이다. 멀지 않아 시가총액 1조달러(약 1095조원) 고지를 밟은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아이팟을 시작으로 아이폰·아이패드·애플와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애플은 2015 회계연도 2분기(2014년 12월 28일~2015년 3월 28일)에 매출 580억 달러, 영업이익 1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31%에 달했다. 그만큼 많이 남기고 제품을 팔았다는 뜻이다.

애플의 가장 큰 힘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다. 이들은 사과마크를 새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구매목록 1순위에 올리고 주저 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신제품을 남보다 먼저 손에 넣기 위해 노숙도 마다하지 않는다. 애플은 고정고객층 확대에 힘입어 대외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매량과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흔히 '애플빠'로 불리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세계최대 가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3월 애플은 중국에서 2000만대 가까운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부유층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폰은 '가장 갖고 싶은 스마트폰'으로 꼽히고 있다. 나머지 애플 제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2.7%, 2.2%였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브랜드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하이엔드'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최초' '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은 언제나 믿고 살 수 있어'라는 믿음과 충성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전략과 혁신제품이 필요하다.

인 사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나향욱
■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승진임용 ▷제1차관실 서기관 김진엽 ▷대변인실 서기관 소순천 ▷운영지원과 서기관 양충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서기관 권도헌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서기관 이영민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서기관 박소정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서기관 오진숙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실 서기관 박성철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서기관 권도연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서기관 홍성운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실 서기관 김홍필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실 서기관 이종인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실 서기관 김성은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서기관 한영기 ▷종무실 서기관 유재식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서기관 김남숙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서기관 박병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술서기관 홍승연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전보▷민원정보분석과장 장차철

부 고

▲오예석씨 별세, 박기범(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선영(서울고등법원 판사)·주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지영씨 모친상, 김상연(대법원 재판연구관)·반정섭(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방중권(한국은행 과장)씨 장모상 = 20일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발인 22일 오전 8시 20분, 010-4601-9053
▲한인숙씨 별세, 차덕철(통일부 교류협력국 서기관)·수연(주부)씨 모친상, 엄용일(㈜콘티넨탈 팀장)씨 장모상 = 20일 오전 2시30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6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27-7500
▲나민수(전 경기대 총장)씨 별세, 나상률(기획재정부 사무관)·상민(GS건설 차장)·희정(헤딩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정(전 LG애드 국장) 씨 부친상, 구자경(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박혜선(한영중학교 교사)씨 시부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22일, 02-3410-6920

기사제보=02)721-9861

Unlimited Calls with 30,000 won a Month

Due to the action taken to decline mobile fee, the new plan will offer unlimited calls and text messages starting from 30,000 won. Saenuri Party has proposed on the 19th to provide voice calls in standard rate. This benefit will be provided to those who use voice calls mainly for their work, such as mailman, drivers, business-men and so on.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will receive this benefit are around three million. And there will be total of 700 billion won worth of saving, thanks to this policy. In addition, the stipulated monthly rate plan will no longer be applied to mobile users. Therefore, users don't need to sign up for contract rate for discounts. 2.3 million people will save up to 360 billion won a year. They can also postpone their data if not used in the previous month and also use the data from the coming month. Also, Kakao voice talk and wireless internet phone will be availabl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월 3만원에 유무선 무제한 통화 가능

가계 통신비 인하 조치에 따라 앞으로 3만원대에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한 뒤 음성통화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음성통화를 3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제공함에 따라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택배기사·대리기사·영업사원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내다봤다. 또 최대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약정요금제에 묶이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약정하지 않아도 약정 할인된 요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약정하지 않고 높은 요금을 부담해온 230만명이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쓰지 않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데이터를 다 쓴 경우 당겨쓰는 것도 가능해지고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된다.

뭘 해도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내 피부는 #방황 중

NEW 오리지널 스킨™ 세럼

푹 자고 일어나면 늘 환하게 되돌아오던 피부, 점점 푸석해지는 것 같다면
피부는 지금 #방황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에이징은 무겁고, 기초 케어만으로는 부족한 #방황 중인 피부에
오리지널 스킨™ 세럼으로 예전의 환했던 피부를 되찾아보세요.
체스트넛 추출물이 피부결을 매끈하게, 윌로우 허브가 피부톤을 환하게,
페르시안 실크 나무 성분이 피부 스트레스를 잠잠하게 합니다.

이제 피부 만큼은 #방황하지 않도록, 오리진스 오리지널 스킨™ 세럼으로 생기로 반짝이는 피부를 되찾으세요.

오리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소식을 만나보세요!

Facebook.com/OriginsKR
Instagram.com/Originskorea

www.origins.co.kr T. 02-3440-2783